

성인기 초기 여성의 물질주의, 외모주의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사회비교와 신체불만족의 매개효과*

설 경 옥[†] 박 선 영 박 지 은
이화여자대학교

우리사회 만연한 물질주의의 폐해에 대한 높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물질주의 가치 추구하고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탐색한 국내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성인기 초기 여성을 대상으로 물질주의 가치 추구하고 이상섭식행동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성인 초기 여성이 물질주의를 추구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외모가 성공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외모주의를 추구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 예상하였고, 외모주의가 높은 여성의 경우 타인의 외모와 자신의 외모를 비교하는 사회비교를 더 빈번히 할 것이라 예측하였다. 이러한 외모에 대한 사회비교는 여성이 자신의 신체에 더욱 불만족하게 되어 결국 그 불만족에 대한 부적응적인 해결 방식으로 이상섭식행동을 보일 것이라 가정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대학에서 모집한 성인 초기 여성 56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물질주의와 이상섭식행동에서 외모주의와 사회비교, 신체불만족의 매개효과를 구조방정식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물질주의는 외모주의를 완전매개로 이상섭식행동을 설명하는 동시에, 물질주의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외모주의와 사회비교, 신체불만족이 순차적으로 완전매개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결과가 갖는 학술 및 상담 실무에의 의의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에 포함하였다.

주요어 : 물질주의, 외모주의, 이상섭식행동, 신체불만족, 사회비교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FR-2015S1A5A8016469).

† 교신저자 : 설경옥,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120-750)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Tel : 02-3277-3918, E-mail : koseol@ewha.ac.kr

우리나라의 국민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 최하위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5). 국내외 학자들은 한국인들의 행복도가 OECD 국가뿐 아니라 개발도상국과 비교해도 유독 낮게 나타나는 이유로 높은 소득불균형, 기회불평등, 사회비교에 따른 좌절감(이양호, 지은주, 권혁용, 2013; 한준, 2015; Helliwell, Layard, & Sachs, 2016) 그리고 한국인의 과도한 물질 중심적 가치 추구 경향성을 제시하였다(구재선, 서은국, 2015; Diener, Suh, Kim-Prieto, Biswas-Diener, & Tay, 2010).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낮은 행복도의 원인에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물질주의 가치가 자리 잡고 있고, 사회 전반에 걸쳐 물질주의 추구의 폐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주의적 가치와 정신건강과의 관계에 대한 국내 연구는 매우 적다.

물질주의는 삶의 가치 중 하나로써 돈과 같은 물질의 획득과 소유를 삶의 목적으로 삼고 이를 바탕으로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Richins와 Dawson(1992)는 물질주의 가치를 세 가지 차원, 즉 물질의 소유와 획득이 삶의 중심이 되는 중심성, 물질의 소유와 소비가 행복이 되는 행복성, 그리고 물질의 소유로 자신과 타인의 성공을 판단하는 성공성으로 정의하였다. 최근 물질주의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 관한 259편의 논문을 메타 분석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성별, 인종, 국가, 물질주의의 정의와 상관없이 물질주의는 일관되게 낮은 삶의 만족과 행복, 낮은 자존감, 그리고 높은 수준의 우울 및 불안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ittmar, Bond, Hurst, & Kasser, 2014). 이 메타분석에서 물질주의와 심리적 안녕의 부적 관계의 강도를 달리하는 조절 변인

중 가장 강력한 변인은 성별이었는데, 연구 참여자 중 여성이 많을수록 물질주의와 심리적 안녕의 부적 관계가 더 강해졌다. 구체적으로 여성만으로 구성된 연구의 물질주의와 심리적 안녕의 평균 효과크기는 $-.24$ 인데 반해 남자만으로 이루어진 연구의 평균 효과크기는 $-.09$ 였다. 이는 여성이 더 물질주의적이 라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물질주의 가치를 추구할수록 심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취약 집단임을 의미한다. Dittmar 등 (2014)은 이러한 성차가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외모를 더 중시하는 경향성을 지목하였다. 여성은 남성과 비교하여 자신의 정체성이나 가치를 외모에 두는 경향이 강하고(Dittmar, 2008, 2011), 여성이 물질주의를 추구할수록 외모와 같은 외적 가치를 중시하며, 자신의 외모를 남들의 외모와 더 빈번히 비교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심리적 안녕감의 저하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아직도 여자보다는 남자가 가정의 주 수입원이라는 사회적 기대가 더 높은 현대 사회에서 남성의 물질주의는 여성의 물질주의보다 사회적으로 더 용납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심리적 적응의 문제가 덜할 수도 있다고 제안하였다(Dittmar et al., 2014). 따라서 본 연구는 성인기 초기 여성이 물질주의 가치를 추구하게 될 때 뒤따르는 외모주의, 그리고 자신의 외모를 남들과 비교하는 사회비교 과정에서 느끼는 열등감과 좌절감(이장한, 조아라, 2013)이 이들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이상 섭식행동 증상의 증가로 연결되는지에 대해 경험적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물질주의와 이상섭식행동

이상섭식행동은 정상 섭식행동과 섭식장애의 연속선상에 있는 행동으로 체중 증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음식물을 통제하여 조금씩 나누어 먹거나, 극단적으로 음식의 양을 제한하거나 굶고, 먹은 음식을 다시 토해 내거나, 짧은 시간 안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상섭식행동은 섭식장애 발병 및 진단의 중요한 예측 요인으로 비임상 일반군에게 자주 연구되어 왔다(Mintz, O'Halloran, Mulholland, & Schneider, 1997). 정신병리 증상 중 치사율이 매우 높은 섭식장애는 특히 20-30대 성인기 초기 여성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 이상섭식행동 역시 후기 청소년기 여성 및 성인기 초기 여성에게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고 섭식장애의 주 예측 요인일 뿐 아니라 우울, 불안과 같은 다른 심리적 문제에 취약하게 하는 위험요인이다(Smink, van Hoeken, & Hoek, 2012). 특히 우리나라 여성의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 불만족 그에 따른 이상섭식행동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미국, 유럽, 아시아 등 22개 국가 대학생의 신체상과 체중조절에 관한 비교연구에 따르면 한국 여대생의 평균 BMI는 19.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체중을 조절하려는 노력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Wardle, Haase, & Steptoe, 2006). 우리나라의 인구대비 성형수술횟수 세계 1위라는 오명(The Economist, 2013) 역시 이러한 과도한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 동안 학계에서는 이상섭식행동 및 섭식장애를 이해하기 위해 생물학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차원의 다차원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생물학적 요인으로는 뇌

의 시상하부 기능 부전이나 호르몬의 영향을 그리고 심리적 요인으로는 완벽주의, 수치심 등을 확인하였으며,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는 날씬한 신체에 대한 사회적 압력, 자기대상화 등이 섭식장애 및 이상섭식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밝혀냈다(Culbert, Racine, & Klump, 2015; Hausenblas et al., 2013). 이 중 섭식장애 전문가들은 마른몸 이상화, 외모주의와 같은 사회문화적 변인을 섭식장애의 제 1위험요인이라 결론내리고 심지어 섭식장애는 사회문화적으로 만들어진 정신건강질환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다수 존재한다(Fawcett, 2004).

섭식장애와 이상섭식행동의 위험 및 유지요인으로 사회문화적 변인이 중요시되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 날씬한 신체에 대한 사회적 압력과 같은 외모주의 변인에 연구가 집중되어 왔다(Grabe, Ward, & Hyde, 2008). 본 논문에서는 성인기 초기 여성의 이상섭식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문화적 변인으로 물질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아직까지 물질주의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검증한 논문은 거의 없다. 최근 아이슬란드의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발표된 논문이 한편 존재하는데(Guðnadóttir & Garðarsdóttir, 2014)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물질주의는 아이슬란드 성인 초기 여성의 체중감소를 위한 섭식제한 행동(dietary restraint)을 예측했으며 이때 신체 불만족이 이 두 변인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했다. Guðnadóttir와 Garðarsdóttir(2014)는 물질주의와 함께 외모주의를 독립된 예측변인으로 설정하고 같은 구조방정식 내에서 동시에 보았을 때 외모주의와 섭식제한행동 간의 관계를 신체불만족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연구는 물질주의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 대해 경험적으로 연구한 최초의 논문이

라는 의의가 있으나 물질주의와 외모주의의 선행 관계 그리고 물질주의와 이상섭식행동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보다 구조적으로 검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실제로 Ashikali와 Dittmar(2012)는 실험연구를 통해 물질주의가 여성의 외모주의를 증가시키고 동시에 신체불만족을 증가시키는 원인변인임을 확인했다. 여성들에게 물질주의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때 자아정체성에서 외모의 중요성이 현격하게 증가하였고, 동시에 여성들은 날씬한 모델 사진을 보고 난 후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 몸과 현실의 자신의 몸 간의 괴리를 더욱 느끼게 되어 결과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더욱 불만족함을 보고했다. 비록 Ashikali와 Dittmar(2012)의 연구에서는 물질주의와 신체불만족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으나 신체불만족이 이상섭식행동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임을(Jacobi et al., 2011) 고려할 때 Guðnadóttir와 Garðarsdóttir(2014)의 연구에서와 같이 물질주의가 신체불만족을 매개로 이상섭식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이 될 것이라 추측가능하다. 물질주의와 이상섭식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나 물질주의와 성형태도에 대한 연구는 몇 편 존재한다. 성형 역시 이상섭식행동과 함께 신체불만족에 의해 예측되는 행동적 변인이라는 측면에서 물질주의와 이상섭식행동 간의 관계를 유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북미의 성인기 초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물질주의 성향이 높고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을 내면화하면 할수록 성형수술 수용도 및 희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Henderson-King & Brooks, 2009). 성형수술 광고에의 노출이 여성의 신체불만족과 성형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 연구 역시 물질주의가 성형수술광

고에의 노출과 신체 불만족을 조절하는 변인임을 밝혀내었다. 물질주의가 높은 여성은 성형수술광고를 보고 난 후 신체불만족이 증가했지만 물질주의가 낮은 여성은 그렇지 않았다(Ashikali, Dittmar, & Ayers, 2015). 물질주의와 이상섭식행동, 외모주의, 성형 그리고 신체불만족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물질주의는 이상섭식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이기는 하나 직접적 예측 변인이라기보다 외모주의, 신체불만족과 같은 변인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상섭식행동을 예측하리라 예상되며 본 연구는 물질주의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를 설명하는 구체적인 매개변인을 밝히기 위해 실시되었다.

물질주의와 이상섭식행동의 매개: 외모주의, 사회비교 그리고 신체불만족

물질주의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변인은 외모주의이다. 섭식장애를 설명하는 주요 사회문화적 변인인 마른 몸 이상화나 외모주의는 물질주의 밀접히 연결된 가치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내재화 하고 그러한 기준에 도달하려고 애쓰면서 외모를 행복과 성공의 중요한 기준으로 여기는 것을 외모주의라 정의하였다. 문화영향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미디어에서 완벽한 외모와 부유한 삶의 방식이 동시에 제시되는 것을 반복적으로 접하게 되고 이를 통해 외모와 돈의 가치를 연합하여 학습하게 된다(Dittmar, 2009). 개인의 자아 정체성에 있어 외모나 돈과 같은 외적인 요소의 중요성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현대 사회의 외모주의와 물질주의는 서로 연결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실제로 물질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개인은 외

모, 명예/인기와 같은 외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Kasser & Ryan, 1996). 이는 물질주의 가치에 돈과 물질적 소유뿐 아니라 젊고, 마르고, 아름다운 외모와 같은 외적으로 보이는 이미지도 중요한 가치로 포함됨을 의미한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는 물질의 소유와 획득에 대한 강조뿐 아니라 외모가 개인의 우열과 성패를 가름하는 수단이 된다고 믿어 지나치게 외모에 집착하는 외모주의(lookism) 혹은 외모시상주의의 가치 역시 팽배해있다(민지현, 2008). 그러나 아직까지 물질주의와 몸을 대상 혹은 소유물로 여기며 중시하는 외모주의, 그리고 이와 연관된 신체 불만족과 이상섭식행동을 연결하여 연구한 논문은 많지 않다(Felix & Garza, 2012). 물질주의와 외모를 연결하여 연구한 논문은 국외에서도 최근에서야 두세 편 정도 발표되었고 국내 연구는 없다. 북미의 성인초기 그리고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상관연구에 따르면 물질주의와 외모주의는 강한 정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Felix & Garza, 2012). 앞서 소개한 Ashikali와 Dittmar(2012)는 실험연구에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물질주의가 외모주의 그리고 신체불만족을 증가시키는 원인변인임을 밝혀내었다. 이와 같은 연구에서 밝혀졌듯 물질주의는 외모주의에 선행하는 가치로서 여성들의 신체불만족 뿐 아니라 이상섭식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Guðnadóttir와 Garðarsdóttir(2014)의 연구에서도 검증되었듯 물질주의는 이상섭식행동을 직접적으로 예측하기보다 다른 심리적 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예측하고, 외모주의는 이상섭식행동을 직접적 그리고 간접적으로 예측하는 변인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물질주의가 외모주의를

통해 이상섭식행동을 예측하는 것 뿐 아니라 외모주의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매개변인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외모주의와 이상섭식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사회비교와 신체불만족을 제시할 수 있다. 이상섭식행동을 사회문화적 변인인 미디어, 부모, 또래의 영향으로 설명하려는 삼자영향모형(tripartite influence model; Thompson, Heinberg, Altabe, & Tantleff-Dunn, 1999)에 의하면 미디어에서 빈번히 제시하는 이상적인 외모와 몸매에 대한 기준, 또래와 부모의 체중이나 외모에 대한 걱정, 놀림, 지적으로 인해 부정적 신체상과 이상섭식행동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 때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내재화와 사회비교는 미디어, 또래, 부모가 제시하는 외모에 대한 기준, 압력과 여성들의 신체불만족 그리고 이상섭식행동을 매개하는 요인이 된다고 제시하였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재화는 미디어와 같은 사회 문화적 체계에서 제시한 미적 기준을 아름다움이라 학습하고 도식을 형성하는 내재화 과정 뿐 아니라 자신의 외모와 신체를 그러한 기준대로 수정하려고 노력하는 행동적 시도까지 포함한다(Thompson & Stice, 2001). 이렇게 삼자영향모형에 따르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재화는 자신이 도달할 수 없이 마르고 정형화된 모델이나 배우와 자신의 외모를 끊임없이 비교, 점검하게 한다. 이러한 사회비교 과정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외모가 사회적 기준에서 벗어나 있음을 더욱 자각하게 하고 결국 자신의 신체에 더 만족하지 못하게 한다. 신체 대상화 이론(objectification theory) 역시 외모주의와 이상섭식행동에 대해 삼자영향모형 같은 기제를 제시한다. 대상화 이론에 따르면 서구화되고 산

업화 된 사회에서 여성은 날씬함과 같은 사회 문화적 미적 기준을 내재화 하여 자신의 몸을 이러한 기준에 의해 평가 받고 점검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기게 된다(Thompson & Hirschman, 1995). 하지만 여성이 사회문화적으로 제시된 "이상적인 외모, 이상적인 몸"과 자신을 비교할수록 더욱더 큰 괴리감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괴리감은 신체불만족, 수치심, 불안과 같은 부정정서를 유발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정정서를 제거하기 위해 동기화 된 여성은 절식, 폭식과 같은 이상섭식행동으로 조절을 시도하고 이런 과정에서 섭식장애가 발병할 수 있다.

우리에게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려는 근본적인 욕구가 있다. 인간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소속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도 하고, 자신을 평가할 근거를 찾기도 하며, 동기도 부여받고 감정조절도 하게 되는데(Festinger, 1954; Tesser & Campbell, 1982) 이러한 과정이 사회비교(social comparison)이다. 의견, 능력, 외모, 재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비교는 일어난다. 사회비교 이론을 처음 제시한 Festinger(1954)에 의하면 개인은 자신과 관련이 있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에서 사회비교를 가장 많이 한다. 사회비교는 나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는 상향 사회비교와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는 하향 사회비교가 있다. 상향 사회비교는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과 같이 되려고 노력하도록 하는 동기를 준다는 점에서는 효과적이거나, 대부분 부정적 자기평가나 부정정서를 일으킨다(Lockwood & Kunda, 1997). 특히 여성은 남성에 비해 외모나 신체에 있어서 상향 사회비교 경향성이 더욱 두드러진다(이장한, 조아라, 2013). 외모주의는 자신의 겉모양이나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이 삶의 중요한 가치이자 목표이고, 자신의 외모를 사회에

서 제시한 미의 기준에 맞추려는 강한 동기를 제공한다. 한 실험연구에 의하면 자존감의 근원이 외모에 있는 정도가 높은, 즉 외모주의 경향이 높은 여성은 마르고 짧은 모델의 광고를 본 후 긍정정서는 감소하고 부정정서는 증가했는데, 이 때 상향 사회비교가 변인 간 관계를 매개하였다(Patrick, Neighbors, & Knee, 2004). 그러나 외모주의 성향이 낮은, 즉 자신의 자존감의 근원을 외모에서 찾는 경향이 낮은 여성의 경우에는 똑같이 마르고 매력적인 모델의 광고를 보고도, 외모에 대한 상향 사회비교를 하거나 부정정서를 경험하여 자신의 신체적 만족도가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사회비교는 사회문화적으로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모델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신체 불만족을 매개하는 핵심변인이다(Dijkstra, Gibbons, & Buunk, 2010; Tiggemann & Slater, 2004). 외모주의가 강하면 강할수록 자신의 외모와 관련된 사회비교를 더 많이 하게 되고 외모와 관련된 사회비교를 하면 할수록 신체불만족도는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Cattarin, Thompson, Thomas, & Williams, 2000; Jacobi et al., 2011; Want, 2009). 신체불만족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정적인 주관적 평가이다. 신체불만족은 거식증, 폭식증과 같은 임상 수준의 섭식장애 뿐 아니라(Johnson & Wardle, 2005; Stice, 2002). 신체에 대한 왜곡된 지각, 과도한 체중감량 시도, 음식에 대한 집착 등 이상섭식행동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변인으로 연구되어 왔다(Stice, Marti, & Durant, 2011; Wilksch & Wade, 2010).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 사회문화적 상황 그리고 성인기 초기 여성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물질주의와 이상섭식행동 간의 관계에서 외모주의, 사회비교 그리고 신체불만족이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구체적으로 물질주의 추구는 이 시기 여성의 외모주의와 직결될 것이라 예상하였고, 남들의 외모와 자신의 외모를 비교하는 사회비교 과정을 통해 더욱 신체에 불만족하게 되어 이상섭식행동증상의 증가를 보일 것이라 예상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물질주의는 외모주의, 사회비교, 신체 불만족을 완전매개로 하여 성인기 초기 여성의 이상섭식행동을 예측할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물질주의는 전반적인 심리적 안녕감을 예측하나 신체불만족이나 이상섭식행동을 직접적으로 예측하는 변인으로 밝혀진 적은 없다. 또한 삼자영향모형에 따라 외모주의 역시 이상섭식행동을 직접 설명하기보다

사회비교와 신체 불만족을 매개로 이상섭식행동을 예측하리라 예상하였다. 물질주의와 외모주의는 모두 외적 가치체계로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Kasser, 2016). 그리하여 연구모형에서는 물질주의가 외모주의와 사회비교, 신체불만족을 통해 이상섭식행동을 설명하리라 제시하였지만, Guðnadóttir와 Garðarsdóttir (2014)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외모주의는 이상섭식행동을 직접적으로 예측하였고 삼자영향모형 이론이나 신체 대상화 이론에 의하면 외모주의는 사회비교 및 신체불만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상섭식행동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쟁모형으로 물질주의가 외모주의를 완전매개로 이상섭식행동을 설명하고, 외모주의가 사회비교와 신체 불만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상섭식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검증하고자 했다. 그림 1, 2에 연구모형 및 경쟁모형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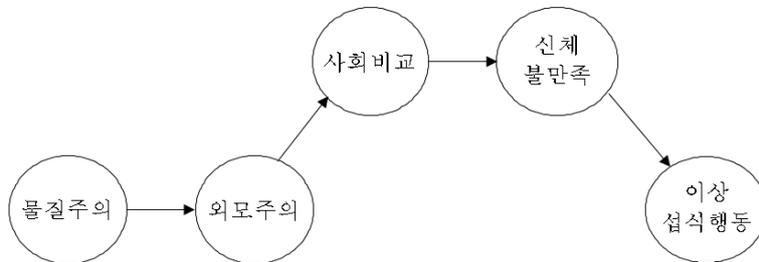


그림 1. 물질주의와 이상섭식행동에 관한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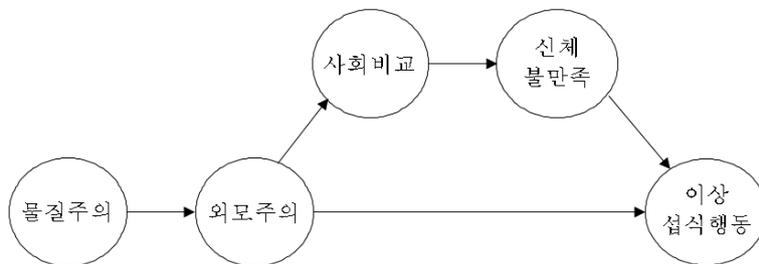


그림 2. 물질주의와 이상섭식행동에 관한 경쟁모형

방 법

연구대상

서울 및 수도권 7개 대학에 온라인 설문참여를 설명하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참여에 동의한 18세에서 31세 성인 여자 57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성별을 불분명하게 표시한 1명의 자료를 제외한 총 569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평균연령은 21.65세 ($SD=2.28$)로 10대는 87명(15.3%), 20대는 478명(84%), 30대는 4명(0.7%)이었다. 평균 BMI는 20.60($SD=2.51$)로 정상체중에 해당하였다. 학력은 대학교 재학 512명(90%), 대학교 졸업 18명(3.2%), 석사 재학 30명(5.3%), 석사 졸업 6명(1.1%), 기타 3명(0.5%)이었다. 직업은 학생 540명(94.9%), 구직 중 9명(1.6%), 사무 종사자 8명(1.4%), 전문직 7명(1.2%),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3명(0.5%), 가정주부 또는 무직 1명(0.2%), 단순노무직 1명(0.2%)이었다.

측정도구

물질주의

물질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Richins와 Dawson(1992)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물질주의 척도(Material Values Scale : MVS)를 심리학 전공 교수 1인과 3인의 박사과정 전공자 그리고 학부에서 영어를 전공한 심리학 석사 전공생 1인과 미국에서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을 마치고 한국에서 대학과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이중 언어 구사자 1인이 번역과 역번역의 과정을 거쳐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8문항으로 세 가지 하위요인인 물질적 소유를 성공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성공수단적 물질주의

(예: "내가 소유한 것들은 내가 얼마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준다.") 6문항, 삶에서 물질의 획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획득중심적 물질주의(예: "쇼핑은 내게 큰 기쁨을 준다.") 7문항, 물질의 소유가 행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행복추구적 물질주의(예: "더 많은 것들을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주어진다"면 나는 더 행복해질 것이다.") 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되며 점수의 총합이 높을수록 물질주의적 가치를 더 많이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번안된 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적합치도 검증과 사각회전방식과 최대우도법을 사용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보다 객관적인 요인수를 확보하기 위한 parallel분석(Wood, Tatarayn, & Gorsuch, 1996)결과 원칙도에서 제시한 것과 일치하게 본 연구대상에도 3요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성공수단 .77, 획득중심 .72, 행복추구 .71로 나타났다.

외모주의

외모주의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Heinberg, Thompson과 Stormer(1995)가 개발한 외모관련 사회문화적 태도 척도(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 SATAQ)를 이상선과 오경자(2003)가 한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4문항으로 2개의 하위요인인 사회문화적 기준에 대한 인식(예: "외모는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과 내면화(예: "따른 여자들의 사진을 보면 나도 말랐으면 좋겠

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을 높게 인식하며 자신의 가치기준으로 내면화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사각회전과 최대우도법을 이용한 요인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표준 요인부하량이 .30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Hair, Anderson, Tatham, & Black., 1992)에 따라 인식요인 중 요인부하량이 .30 이하로 낮은 한 문항을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13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외모주의의 신뢰도 계수는 인식 .60, 내면화 .84로 나타났다.

사회비교

사회비교는 외모 영역에 대한 사회비교를 측정하는 Tiggemann과 McGill(2004)이 개발하고 손은정(2008)이 번안하여 사용한 구체적인 신체특성 비교척도(SACS)와 Thompson, Heinberg와 Tantleff-Dunn(1991)가 개발하고 손은정(2008)이 번안하여 사용한 신체 외모에 대한 비교척도(PACS)를 사용하였다. 신체 특성에 대한 비교척도 총 5문항(예: "마른 여자들이 청바지를 입은 것을 보면 그런 옷을 입었을 때 나의 하체는 어떻게 보일까 비교한다"), 외모에 대한 비교척도 총 5문항(예: "나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때 다른 사람과 나의 몸매를 비교하곤 한다")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에 대한 사회적 비교경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신체특성 비교척도는 .84 그리고 외모 비교척도는 .73 이었다.

신체불만족

신체불만족은 신체, 외모에 대한 태도와 감정을 측정하기 위해 Mendelson과 White(1993)가 개발한 신체자존감(The Revised Body-Esteem Scale) 척도를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물질주의 척도의 번역 과정에 참여한 연구자들이 동일한 번역과 역번역 절차를 진행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Mendelson, White와 Mendelson(1996)의 요인분석 결과 외모 신체자존감(예: "나는 사진 속의 내 모습을 좋아한다"), 체중 신체자존감(예: "나는 내 몸무게에 꽤 만족한다"), 타인평가귀인 신체자존감(예: "다른 사람들이 나의 외모를 놀린다")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불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타인평가귀인 하위요인을 제외한 외모 신체자존감 9문항과 체중 신체자존감 6문항의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신체불만족을 구성하였으며, 외모와 체중에 대한 만족함 문항을 역채점하여 점수의 총합이 높아질수록 부정적인 신체자존감을 나타내고 신체불만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외모 신체자존감의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83, 그리고 체중 신체자존감 신뢰도 계수는 .86으로 나타났다.

이상섭식행동

이상섭식행동은 Garner와 Garfinkel(1979)이 섭식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를 Garner, Olmsted, Bohr와 Garfinkel(1982)이 단축하고 재수정한 식이태도검사(Eating Attitude Test-26)를 토대로 이민규 등(1998)이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한국판 식사태도검사-26(The Korean Version of Eating Attitudes Test-

26: KEAT-26)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6문항으로 3개의 하위요인인 절식, 섭식통제, 폭식증과 음식에 대한 집착으로 구성되어 있다. Ganer와 Garfinkel(1979)는 본래 본 척도를 신경성 거식증환자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나 이후 정상체중인 사람들 중에서도 식이장애가 의심되는 단계를 잘 감별해내어 임상 장면 뿐 아니라 연구용으로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임상군이 아닌 비임상 일반군을 대상으로 한 만큼 원척도의 하위 요인이 본 연구대상에게도 적합하게 적용되는지 검증하기 위해 사각회전방식과 최대우도법을 사용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척도와 동일한 3개의 하위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일반군 연구대상에게 절식(예: "설탕이 든 음식을 피한다.")과 섭식통제(예: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음식을 천천히 먹는다.")의 2개 하위요인은 이상섭식 행동이 아닌 정상섭식행동으로 해석가능하고, 실제 본 연구의 상관분석 결과에도 신체만족 정도와 정적관계가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폭식증의 하위 영역으로 이상섭식행동을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폭식증 하위요인은 폭식요인 4문항(예: "스스로 멈출 수 없을 것 같다고 느낄 때까지 계속 먹어댄다.")과 음식 제거행동요인 2문항(예: "먹고 난 뒤에는 토해버린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항상 그렇다)로 평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섭식태도가 부정적인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이상섭식행동의 신뢰도 계수는 폭식과 음식제거행동 각각 .85, .78로 나타났다.

분석 방법

본 연구는 SPSS 18과 Mplus 7.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의 절차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주요 변수들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내적합치도(Cronbach's α)와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기술통계 분석으로 자료의 이상치 및 정규성을 검토하였다. 둘째, 잠재변인 및 측정변인 간의 관련성을 상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셋째, 여대생의 물질주의, 외모주의와 이상섭식행동 간의 관계에서 사회비교와 신체불만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모형을 확인하였다. 구조방정식의 2단계 접근법(Anderson & Gerbing, 1988)에 따라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히 구인하는지 확인한 후 구조모형의 전체 적합도 및 간접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CFI가 .90이상이고, SRMR이 .08이하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가 .10이하이면 괜찮은 적합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하였다(홍세희, 2000; Browne & Cudeck, 1993). 자료의 결측치는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 방식으로 처리하였고, 최종모형의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Bootstrapping은 모집단의 분포를 모르는 경우 표본을 반복 추출하여 경험적인 분포를 얻어 모집단의 분포를 추정하며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간접효과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한다(Shrout & Bolger, 2002).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 그리고 변인 간 상관계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각 변인의 왜도 및 첨도의 절댓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아 다변량 정상성 가정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Curran, West, & Finch, 1996). 주요 잠재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 물질주의는 외모주의($r=.47, p<.01$)와는 큰 크기의 정적 상관을 보였고, 사회비교($r=.39, p<.01$)와는 중간크기의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신체불만족($r=.25, p<.01$) 그리고 이상섭식행동($r=.24, p<.01$)과는 작은 크기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외모주의는 사회비교($r=.67, p<.01$)와는 매우 큰 크기의 정적 상관을 보였고, 신체불만족($r=.42, p<.01$) 그리고 이상섭식행동($r=.38, p<.01$)과는 중간크기의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사회비교는 신체불만족($r=.43, p<.01$), 이상섭식행동($r=.38, p<.01$)과 중간 크기의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신체불만족은 이상섭식행동($r=.29, p<.01$)과 역시 중간 크기의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주요 변인의 상관분석 결과 (N=569)

	1	1-1	1-2	1-3	2	2-1	2-2	3	3-1	3-2	4	4-1	4-2	5	5-1	5-2
1. 물질주의	1															
1-1. 성공수단	.87**	1														
1-2. 획득중심	.83**	.56**	1													
1-3. 행복추구	.80**	.60**	.47**	1												
2. 외모주의	.47**	.42**	.38**	.38**	1											
2-1. 인식	.31**	.29**	.22**	.26**	.72**	1										
2-2. 내면화	.46**	.40**	.38**	.37**	.95**	.46**	1									
3. 사회비교	.39**	.38**	.28**	.33**	.67**	.40**	.67**	1								
3-1. 신체특성	.30**	.28**	.22**	.25**	.63**	.37**	.63**	.93**	1							
3-2. 외모	.43**	.42**	.30**	.36**	.59**	.35**	.59**	.89**	.66**	1						
4. 신체불만족	.25**	.16**	.16**	.32**	.42**	.28**	.41**	.43**	.46**	.32**	1					
4-1. 외모불만족	.24**	.16**	.13**	.34**	.27**	.17**	.27**	.27**	.24**	.24**	.86**	1				
4-2. 체중불만족	.17**	.11**	.14**	.20**	.44**	.30**	.43**	.47**	.54**	.30**	.82**	.40**	1			
5. 이상섭식행동	.24**	.22**	.20**	.18**	.38**	.22**	.38**	.38**	.35**	.35**	.29**	.20**	.30**	1		
5-1. 폭식	.25**	.23**	.22**	.19**	.38**	.23**	.38**	.37**	.33**	.34**	.28**	.17**	.30**	.97**	1	
5-2. 음식제거행동	.10*	.10*	.06	.10*	.24**	.11**	.25**	.28**	.26**	.24**	.23**	.20**	.18**	.71**	.51**	1
평균	3.04	3.04	3.09	2.97	3.64	4.07	3.38	3.18	3.22	3.15	2.94	2.55	3.52	2.18	2.57	1.41
표준편차	0.57	0.72	0.63	0.68	0.57	0.52	0.73	0.81	0.98	0.80	0.58	0.60	0.81	0.94	1.14	0.85
왜도	-0.31	-0.52	-0.02	-0.10	-0.04	-0.18	-0.27	-0.14	-0.27	-0.11	0.24	0.47	-0.14	1.08	0.66	2.67
첨도	0.02	0.07	-0.31	-0.13	-0.23	-0.28	-0.14	-0.29	-0.42	-0.25	-0.06	0.31	-0.47	1.33	-0.15	7.83

주. * $p<.05$, ** $p<.01$.

물질주의와 이상섭식행동에서 외모주의, 사회 비교, 신체불만족의 매개효과 검증

물질주의와 이상섭식행동에 관한 측정모형의 검증 결과 CFI는 .932, SRMR은 .047 그리고 RMSEA는 .087(90% 신뢰구간=.074-.099)로 괜찮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물질주의와 이상섭식행동 간의 관계를 외모주의, 사회비교, 신체불만족이 완전매개하는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χ^2 는 211.566, 자유도(df)는 40, CFI는 .920, SRMR은 .049 RMSEA는 .087(90% 신뢰구간=.076-.099)로 괜찮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외모주의가 이상섭식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설명력을 추가한 경쟁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χ^2 는 187.992, 자유도(df)는 39, CFI는 .930, SRMR은 .045, RMSEA는 .082(90% 신뢰구간=.070-.094)로 괜찮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χ^2 차이 검증 결과 경쟁모형이 연구모형에 비해 자유도가 1만큼 감소하였지만 감소한 카이스퀘어 값이 .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경쟁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했다($\Delta\chi^2(1, N=569)=23.574, p<.01$).

최종 구조모형을 검증한 결과, 모든 경로계수가 유의하였다(그림 3). 구체적으로 물질주의와 외모주의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58($p<.001$), 외모주의와 사회비교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86($p<.001$), 외모주의와 이상섭식행동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39($p<.001$), 사회비교와 신체불만족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67($p<.001$), 신체불만족과 이상섭식행동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19($p<.05$)이었다.

물질주의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외모주의, 사회비교, 신체불만족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5000개의 표본을 원자료(N=569)로부터 추출하여 부스트래핑 검증을 실시하였다. 물질주의와 이상섭식행동 간에 외모주의가 완전매개하는 간접효과를 검증한 결과 간접효과의 비표준화계수는 .27, 95% Bias-Corrected CI=[.16, .41]이었고, 외모주의와 이상섭식행동 간에 사회비교, 신체불만족이 이중 부분매개하는 간접효과의 비표준화계수는 .08, 95% Bias-Corrected CI=[.02, .19]이었다. 물질주의와 이상섭식행동 간에 외모주의 사회비교 신체불만족이 삼중 매개하는 간접효과의 비표준화계수는 .07 95% Bi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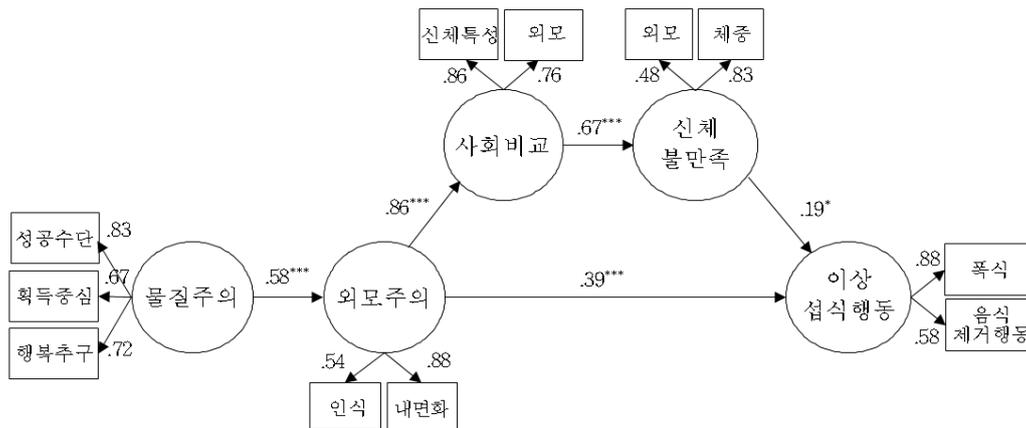


그림 3. 물질주의와 이상섭식행동에 관한 최종 연구모형

표 2. 부스트래핑을 통한 간접효과분석 결과

매개경로			Bootstrap 추정치	95%신뢰구간 Bias-corrected		
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	비표준화 계수	SE	하한	상한
물질주의	→ 외모주의	→ 이상섭식행동	0.27*	0.06	0.16	0.41
외모주의	→ 사회비교	→ 신체불만족	0.08*	0.04	0.02	0.19
물질주의	→외모주의 →사회비교 →신체불만족	→이상섭식행동	0.07*	0.04	0.01	0.17

* $p < 0.5$, ** $p < .01$, *** $p < .001$

Corrected CI=[.01, .17]이었다. 결과적으로 경쟁 모형에서 제시하였던 매개효과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논 의

우리사회의 물질주의 가치 추구의 폐해에 대한 높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물질주의적 가치 추구하고 정신건강의 관련성을 탐색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정신건강 문제를 사회문화적 변인으로 설명하기 위한 접근으로 성인기 초기 여성의 물질주의, 외모주의와 같은 외적 가치의 추구하고 이상섭식행동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물질주의와 심리적 안녕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Dittmar et al., 2014) 물질주의가 여성의 심리적 안녕을 더 위협한다는 결과와 사회문화적 영향으로 이상섭식행동을 설명하는 삼자영향 모형 그리고 신체 대상화 이론(Kasser & Ryan, 1996; Fredrickson & Roberts, 1997)에 근거하여 성인기 여성에게 물질주의와 이상섭식행동 간의 관계를 외모주의, 사회비교 그리고 신체불

만족이 완전매개할 것이라는 연구모형과 물질주의가 외모주의를 완전매개로 이상섭식행동을 설명하는 경로를 추가한 경쟁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경쟁모형이 지지되었다. 구체적으로 물질주의 추구 경향성이 높을수록 외모주의 추구 경향성 역시 증가하였고, 외모주의가 높을수록 자신의 몸과 외모를 타인과 더 많이 비교하였고, 이러한 사회비교는 신체불만족으로 이어졌으며,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높을수록 이상섭식행동도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물질주의는 외모주의를 매개로 이상섭식행동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한 해석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물질주의가 외모주의를 통해 이상섭식행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이슬란드의 성인기 초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 비슷하지만(Guðnadóttir & Garðarsdóttir, 2014) 그들의 연구에서는 물질주의와 외모주의가 각각 연구대상의 이상섭식행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Guðnadóttir와 Garðarsdóttir(2014)의 연구를 보다 발전시켜 물질주의가 외모주의에 선행하는 변인으로써 이를 매개로 이상섭식행동을 예측함을 밝혔다. 이는 돈과 같은 물질

적 가치의 추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외모주의로 이어지게 되고 이러한 경향성은 여성이 사회적 규준에 따른 미를 획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처럼 반복적인 구토나 과도한 운동과 같은 이상섭식행동의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외모주의는 직접적으로 이상섭식행동을 예측하기도 하나, 사회비교와 신체불만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상섭식행동을 예측하기도 했다. 최근 한 종단 연구에 의하면 사회문화적으로 강조되는 마른 몸을 미의 규준으로 이상화하고 자신의 몸을 그렇게 맞추고자 노력하는 것과 같은 외모주의의 추구는 사회비교를 매개로 신체 불만족을 종단적으로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odgers, McLean, & Paxton, 2015). 전공의 특성상 외모의 중요성과 도구성이 특히 강조되는 무용 및 연기를 전공하는 국내 남녀 고등학생,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들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 내재화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를 신체 불만족이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김나희, 김교현, 김수현, 2015). 외모주의와 같은 외적 가치체계를 추구할 경우 외모를 개인 내면의 가치에 의해 인식하고 받아들이기보다 사회문화적 체계에서 외적으로 제시된 미의 기준대로 개인의 외모를 대상화하고 평가하게 되어 신체불만족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Thompson & Stice, 2001).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외모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사회적 관계, 지위, 연애 상대등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외모 도구화로 외모주의를 측정하여 신체만족감과 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남자청소년의 신체만족과 외모주의는 상관이 없었으나, 여자청소년의 신체만족과 외모주의는 강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미숙, 2013).

특히 중, 고등학생을 연령대 별로 비교했을 때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외모주의의 수용정도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외모를 강조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노출이 더 많이 되면 될수록 외모의 중요성에 대한 학습이 더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미숙(2013)의 연구에서 외모주의 자체는 성차가 없었는데 반해 성별에 따른 외모주의와 신체불만족 관계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Dittmar 등(2014)의 물질주의와 정신건강의 메타분석에서도 밝혀졌듯이 물질주의 자체에는 성차가 없으나 여성에게 물질주의가 정신건강과 더 큰 부적 상관이 나타나는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와 동기로 돈을 좇는 삶을 선택하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는 사회비교의 경향성이 높거나 또는 자신에 대해 불안할 때 돈을 좇게 된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돈을 통해 의식주를 해결하여 얻는 안전감이나 가족을 부양하는데서 오는 성취감을 얻기 위해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 하기도 한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자의 경우 삶의 만족 및 행복과 부적 상관이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Srivastava, Locke, & Bartol, 2001). 다시 말해, 돈을 좇는 삶이 불행과 연관이 있었을 때는 돈을 벌려는 이유가 남들과 비교해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해야 남보다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다고 믿는 사회비교 동기에서 올 때였다. 한편, 자기결정이론에 따르면 물질주의가 정신건강에 유해한 이유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자율성, 유능감, 소속감)를 좌절시키기 때문이다(Kasser, 2002). 부, 명예, 외모와 같은 외적 삶의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개인적 성장, 인간관계, 공동체와 같은 내적 삶의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비교하여 덜 행복하였다 (Ryan et al., 1999). 물질주의와 심리적 적응문제의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밝히기 위한 실험연구에서 역시 돈이나 물질적 소유에 더 가치를 두도록 조작을 가한 결과 실험참여자들은 물질적 걱정을 더 많이 하고, 더 경쟁적 그리고 자기중심적이 되었고,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느꼈으며 사회적으로도 사람들과 더 거리감을 느끼게 되었다(Bauer, Wilkie, Kim, & Bodenhausen, 2012). 이 실험결과는 물질주의와 심리적 적응의 문제는 인과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물질주의는 개인내적 성격 특성이라기보다 사회, 문화적 환경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고, 그렇게 형성된 물질주의가 사람들의 심리 사회적 안녕감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결과에서 물질주의는 외모주의, 사회비교 그리고 신체불만족을 통해 여성의 안녕감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이상섭식행동의 증가를 예측하였다. 외모주의는 물질주의와 함께 외적가치체계라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여성에게서 외모는 돈과 같은 재화로 인식되고, 특히 미혼의 20대 여성에게 외모는 결혼이나 취업시장에서 돈과 같이 경쟁력을 부여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성별에 따른 기대가 확연한 사회에서 여성의 외모는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게 된다(Zentner & Mitura,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처럼 성인 초기 여성이 지각한 외모에 대한 중요성은 사회 문화적으로 제시된 미의 기준과 자신의 몸을 비교하게 하고 이러한 비교가 계속될수록 여성은 이상적 외모와 자신의 현재 외모의 차이에서 오는 괴리감과 신체불만족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때 발생하는 부정적 정서를 줄이려는 노력으로 이상섭식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가 갖는 학술적 의의는 국내에서 물질주의와 이상섭식행동과 같은 구체적인 정신건강의 변인과의 관계를 처음으로 소개한 것이다. 물질주의 연구는 국외, 국내 모두 소비자학이나 언론학에서 집중되어 왔다. 물질주의와 정신건강의 부적 관계는 이미 종단 및 메타분석 연구 결과(예: Dittmar et al., 2014) 그리고 다양한 연령 및 문화집단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것을 고려할 때 상담심리학 분야에서도 물질주의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괄목할 만한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낮은 행복도, 높은 자살률과 같은 사회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물질주의, 외모주의와 같은 외적 가치체계의 추구하고 무관하지 않다(구채신, 서은국, 2015). 본 연구는 상담심리학에서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를 접근할 때 개인변인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변인의 고려의 중요성을 제시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와 상담에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여성이 물질주의, 외모주의와 같은 외적 가치체계를 추구할 때 제일 먼저, 그리고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의 영역은 외모, 몸과 관련 있는 섭식장애 혹은 이상섭식행동 증상일 것이다. 정신병리 증상 중 높은 치사율을 보이는 섭식장애는 20-30대 젊은 여성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절식, 폭식, 과도한 다이어트행동 등과 같은 이상섭식행동은 상담현장에서 상담자가 접하는 가장 빈번한 내담자의 호소 문제 중 하나이다. 부정적인 신체상과 신체불만족은 식이장애 그리고 이상섭식행동 뿐 아니라 전반적인 여성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Grabe et al., 2008). 상담개입 시 내담자의 외적 그리고 내적 가치의 고찰을 통

해 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내담자의 정신 건강에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한 자각을 돕고, 내담자의 증상완화와 성장을 위한 자아수용, 공동체, 소속감, 그리고 영적 성장과 같은 내적가치 추구의 재고를 도울 수 있다. 또한 물질, 외모, 사회적 지위와 같은 외적가치체계를 추구하는 경우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사회 비교 경향성이 증가하며(구재선, 서은국, 2015) 이러한 사회비교는 심리적 안녕감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특히 사회비교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하는 영역에서 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물질주의나 외모주의 경향성이 강한 내담자의 경우 자신의 물질적 소유, 그리고 외모, 신체 등을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오는 괴리감, 좌절감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극복하려는 시도로 이상섭식 행동증상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상담을 통해 내담자가 의도적으로 때로는 자동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사회비교에 대한 통찰을 높이고, 사회비교 후에 경험하는 심리적 불편감에 대해 탐색해 보고 보다 건강한 방법으로 부정 정서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성인기 초기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에게 가장 많이 보고되는 정신건강 문제 중 하나인 이상섭식행동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발달 단계에 따라 그리고 성별에 따라 물질주의가 정신건강에 갖는 함의는 다를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아동, 청소년, 성인기 후기 남녀, 노년의 다양한 연령대에서 발달과업을 고려한 새로운 주제가 연구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외 선행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들에게 물질주의는 이 시기에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인 학업 성취

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Ku, Dittmar, & Banerjee., 2012). 또한 물질주의는 경제적 요구가 높은 중년층에게 더 높게 나타나는데(Morgan & Robinson, 2013), 이처럼 다른 발달 단계와 비교하여 중년층이 경험하는 물질주의가 이들의 정신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외모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이상선과 오경자(2003)가 사용된 한글판 외모관련 사회문화적 태도 척도(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의 인식하위요인의 신뢰도계수(Cronbach's α)가 .60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그런데 인식하위요인은 한국어대생들 대상으로 타당화한 연구결과(이상선, 오경자, 2003)에서도 신뢰도 계수(Cronbach's α)가 .52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중, 고등학교, 대학교 여성을 대상으로 측정 후 탐색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인식 요인의 두 문항이 다른 한 요인인 내면화 요인에 동시에 부합하는 이유로 제외되기도 하였다(조선명, 고애란, 2001).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외모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한글판 외모관련 사회문화적 태도척도의 요인구조와 낮은 신뢰도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타당하고 신뢰로운 척도로 외모주의를 측정하여 물질주의 및 이상섭식행동과의 관계를 연구 할 수 있겠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 연구로서 연구 변인의 경로의 방향성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물질주의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의 방향성을 더욱 명확히 하고 물질주의의 취약한 집단을 밝히기 위한 종단 연구가 필요하다. 국내 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아직 물질주의의 발달 궤적에 대한 충분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서는 물질주의와 정신건강 변인의 인과 관계 및

선후 변인을 밝히는 실험 및 중단 연구가 실시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동, 청소년들이 물질주의 가치체계를 받아들이고 내면화 하는 과정, 그에 따른 심리적 결과, 가족 내에서 물질주의 가치체계의 전이 그리고 물질주의나 외모주의와 같은 가치체계 때문에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는 개인을 위한 개입방안 등 다양한 중단연구 및 상담치료 개입연구가 가능하다.

참고문헌

- 김나희, 김교현, 김수현 (2015). 날씬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이 절식태도와 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0(3), 527-546.
- 구재선, 서은국 (2015). 왜 한국 대학생이 미국 대학생보다 불행한가? 상대적 외적 가치, 사회적 지원, 사회비교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9(4), 63-83.
- 민지현 (2008). 논문: 미디어 이용이 청소년의 외모지상주의와 신체변형욕구에 미치는 영향: 텔레비전 오락프로그램과 1인 미디어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19(단일호), 45-78.
- 손은정 (2008). 여대생의 자아존중감, 신체 비교, 마른 이상적인 체형의 내면화, 신체 불만족이 이상 섭식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3), 885-901.
- 이미숙 (2013). 외모도구성이 청소년의 신체만족도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2(1), 75-88.
- 이민규, 이영호, 박세현, 손창호, 정영조, 홍성국, 이병관, 장필립, 윤애리 (1998). 한국판 식사태도검사-26(The Korean Version of Eating Attitudes Test-26 : KEAT-26) 표준화 연구 I: 신뢰도 및 요인분석. *한국정신지체 의학*, 6(2), 155-175.
- 이상선, 오경자 (2003).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태도 설문지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4), 913-926.
- 이양호, 지은주, 권혁용 (2013). 불평등과 행복. *한국정치학회보*, 47(3), 25-43.
- 이장한, 조아라 (2013). 성차에 따른 신체 비교와 신체 불만족 간의 관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8(1), 105-120.
- 조선명, 고애란 (2001).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와 신체이미지가 의복추구행태에 미치는 영향-청소년기 여학생의 연령 집단별 차이 비교. *한국의류학회지*, 25(7), 1227-1238.
- 한 준 (2015). 한국인 삶의 질의 사회적 결정 요인. *국정관리연구*, 10(2), 67-95.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8.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Ashikali, E. M., & Dittmar, H. (2012). The effect of priming materialism on women's responses to thin-ideal media.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1(4), 514 - 533.
- Ashikali, E. M., Dittmar, H., & Ayers, S. (2015). The impact of cosmetic surgery advertising on women's body image and attitudes towards cosmetic surgery. *Psychology of Popular Media*

- Culture*, first published on December 14, 2015 as <http://dx.doi.org/10.1037/ppm0000099>
- Bauer, M. A., Wilkie, J. E. B., Kim, J. K., & Bodenhausen, G. V. (2012). Cuing consumerism: Situational materialism undermines personal and social well-being. *Psychological Science, 23*(5), 517-523.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2-162). Newbury Park, CA: Sage.
- Cattarin, J. A., Thompson, J. K., Thomas, C., & Williams, R. (2000). Body image, mood, and televised images of attractiveness: The role of social compariso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9*(2), 220-239.
- Culbert, K. M., Racine, S. E., & Klump, K. L. (2015). Research Review: What we have learned about the causes of eating disorders - a synthesis of sociocultural, psychological, and biological research.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6*(11), 1141-1164.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Diener, E., Suh, E. M., Kim-Prieto, C., Biswas-Diener, R., & Tay, L. S. (2010). Unhappiness in South Korea: Why it is high and what might be done about it.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1-23. 8월 19일. 서울: 서울대학교 멀티미디어 강의동.
- Dijkstra, P., Gibbons, F. X., & Buunk, A. P. (2010). Social comparison theory. In J. E. Maddux & J. P. Tangney (Eds.), *Social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clinical psychology* (pp. 195-211). New York: Guilford Publications.
- Dittmar, H. (2008). *Consumer culture, identity and well-being: The search for the "good life" and the "body perfect."* Hove, England: Psychology Press.
- Dittmar, H. (2009). How do "Body Perfect" ideals in the media have a negative impact on body image and behaviors? Factors and processes related to self and identit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Special Issue: Body Image and Eating Disorders, 28*(1), 1 - 8.
- Dittmar, H. (2011). Material and consumer identities. In S. J. Schwartz, K. Luyckx, & V. L. Vignoles (Eds.), *Handbook of identity: theory and research* (pp. 745 - 769). New York: Springer.
- Dittmar, H., Bond, R., Hurst, M., & Kasser, T.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ism and personal well-being: A meta-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7*(5), 879-924.
- Fawcett, J. (2004). Is BDD culturally induced? *Psychiatric Annals, 34*(12), 900.
- Felix, R., & Garza, M. R. (2012). Rethinking worldly possessions: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ism and body appearance for female consumers in an emerging economy. *Psychology & Marketing, 29*(12), 980-994.
-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2), 117-140.
- Fredrickson, B. L., & Roberts, T. A. (1997). Objectification theory.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2), 173-206.

- Garner, D. M., & Garfinkel, P. E. (1979). The eating attitudes test: An index of the symptoms of anorexia nervosa. *Psychological Medicine, 9*(2), 273-279.
- Garner, D. M., Olmsted, M. P., Bohr, Y., & Garfinkel, P. E. (1982). The eating attitudes test: Psychometric features and clinic correlates. *Psychological Medicine, 12*(4), 871-878.
- Grabe, S., Ward, L. M., & Hyde, J. S. (2008). The role of the media in body image concerns among women: A meta-analysis of experimental and correlational studies. *Psychological Bulletin, 134*(3), 460-476.
- Guðnadóttir, U., & Garðarsdóttir, R. B. (2014). The influence of materialism and ideal body internalization on body dissatisfaction and body shaping behaviors of young men and women: Support for the consumer culture impact model.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55*(2), 151-159.
- Hair, J., Anderson, R. E., Tatham, L., & Black, W. C. (1992). *Multivariate data analysis with regarding*.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 Hausenblas, H. A., Campbell, A., Menzel, J. E., Doughty, J., Levine, M., & Thompson, J. K. (2013). Media effects of experimental presentation of the ideal physique on eating disorder symptoms: A meta-analysis of laboratory studies. *Clinical Psychology Review, 33*(1), 168-181.
- Heinberg, L. J., Thompson, J. K., & Stormer, S. (199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7*(1), 81-89.
- Helliwell, J., Layard, R., & Sachs, J. (2016). *World Happiness Report 2016, Update (Vol. 1)*. New York: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 Henderson-King, D., & Brooks, K. D. (2009). Materialism, sociocultural appearance messages, and paternal attitudes predict college women's attitudes about cosmetic surgery.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3*(1), 133-142.
- Jacobi, C., Fittig, E., Bryson, S. W., Wilfley, D., Kraemer, H. C., & Taylor, C. B. (2011). Who is really at risk? Identifying risk factors for subthreshold and full syndrome eating disorders in a high-risk sample. *Psychological Medicine, 41*(9), 1939-1949.
- Johnson, F., & Wardle, J. (2005). Dietary restraint, body dis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a prospective analysi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4*(1), 119-125.
- Kasser, T., & Ryan, R. M. (1996). Further examining the American dream: Differential correlates of intrinsic and extrinsic go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3), 80-87.
- Kasser, T. (2002). *The high price of materialism*. Cambridge, MA: MIT Press.
- Kasser, T. (2016). Materialistic values and goal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7*, 489-514.
- Ku, L., Dittmar, H., & Banerjee, R. (2012). Are materialistic teenagers less motivated to learn?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evidence from the United Kingdom and Hong Ko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4*(1), 74 - 86.

- Lockwood, P., & Kunda, Z. (1997). Superstars and me: Predicting the impact of role models on the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1), 91-103.
- Mendelson, B. K., & White, D. R. (1993). Manual for the body-esteem scale for children. *Concordia University Research Bulletin, 12*(2), 1-10.
- Mendelson, B. K., White, D. R., & Mendelson, M. J. (1996). Self-esteem and body esteem: Effects of gender, age, and weight.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7*(3), 321-346.
- Mintz, L. B., O'Halloran, M. S., Mulholland, A. M., & Schneider, P. A. (1997). Questionnaire for eating disorder diagnoses: Reliability and validity of operationalizing DSM-IV criteria into a self-report forma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4*(1), 63-79.
- Morgan, J., & Robinson, O. (2013). Intrinsic aspirations and personal meaning across adulthood: Conceptual interrelations and age/sex differences. *Developmental Psychology, 49*(5), 999-1010.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5). *Better Life Index*. Retrieved from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countries/korea/> 예시 2016. 8. 18 자료 얻음
- Patrick, H., Neighbors, C., & Knee, C. R. (2004). Appearance-related social comparisons: The role of contingent self-esteem and self-perceptions of attractivenes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0*(4), 501-514.
- Richins, M. L., & Dawson, S. A. (1992). Consumer values orientation for materialism and its measurement: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9*(3), 303-316.
- Rodgers, R. F., McLean, S. A., & Paxton, S. J. (2015). Longitudinal relationships among internalization of the media ideal, peer social comparison, and body dissatisfaction: Implications for the tripartite influence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51*(5), 706-713.
- Ryan, R. M., Chirkov, V. I., Little, T. D., Sheldon, K. M., Timoshina, E., & Deci, E. L. (1999). The american dream in russia: Extrinsic aspirations and well-being in two cultur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5*(12), 1509-1524.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mink, F. R., van Hoeken, D., & Hoek, H. W. (2012). Epidemiology of eating disorders: Incidence, prevalence and mortality rates. *Current Psychiatry Reports, 14*(4), 406-414.
- Srivastava, A., Locke, E. A., & Bartol, K. M. (2001). Money and subjective well-being: It's not the money, it's the motiv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6), 959-971.
- Stice, E. (2002). Risk and maintenance factors for eating pathology: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28*(5), 825-848.
- Stice, E., Marti, C. N., & Durant, S. (2011). Risk factors for onset of eating disorders: Evidence of multiple risk pathways from an 8-year prospective stud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9*(10), 622-627.

- Tesser, A., & Campbell, J. (1982). Self-evaluation maintenance and the perception of friends and strangers. *Journal of Personality, 50*(3), 261-279.
- The Economist (2013, January 30). Daily chart: plastic makes perfect. <http://www.economist.com/blogs/graphicdetail/2013/01/daily-chart-22> 에서 2016. 8. 18 자료 얻음.
- Thompson, J. K., Heinberg, L., & Tantleff-Dunn, S. (1991). The physical appearance comparison scale. *The Behavior Therapist, 14*, 174.
- Thompson, C. J., & Hirschman, E. C. (1995). Understanding the socialized body: A poststructuralist analysis of consumers' self-conceptions, body images, and self-care practic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2*(2), 139-153.
- Thompson, J. K., Heinberg, L. J., Altabe, M., & Tantleff-Dunn, S. (1999). *Exacting beauty: Theory, assessment, and treatment of body image disturbanc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Thompson, J. K., & Stice, E. (2001). Thin-ideal internalization: Mounting evidence for a new risk factor for body-image disturbance and eating pathology.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0*(5), 181-183.
- Tiggemann, M., & McGill, B. (2004). The role of social comparison in the effect of magazine advertisements on women's mood and body dissatisfactio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1), 23-44.
- Tiggemann, M., & Slater, A. (2004). Thin ideals in music television: A source of social comparison and body dissatisfa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35*(1), 48-58.
- Want, S. C. (2009). Meta-analytic moderators of experimental exposure to media portrayals of women on female appearance satisfaction: Social comparisons as automatic processes. *Body Image, 6*(4), 257-269.
- Wardle, J., Haase, A. M., & Steptoe, A. (2006). Body image and weight control in young adults: International comparisons in university students from 22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Obesity, 30*(4), 644-651.
- Wilksch, S. M., & Wade, T. D. (2010). Risk factors for clinically significant importance of shape and weight in adolescent girl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9*(1), 206-215.
- Wood, J. M., Tataryn, D. J., & Gorsuch, R. L. (1996). Effects of under-and overextraction on principal axis factor analysis with varimax rotation. *Psychological Methods, 1*(4), 354-365.
- Zentner, M., & Mitura, K. (2012). Stepping out of the caveman's shadow nations' gender gap predicts degree of sex differentiation in mate preferences. *Psychological Science, 23*(10), 1176-1185.
- 원 고 접 수 일 : 2016. 03. 07
수정원고접수일 : 2016. 05. 25
게 재 결 정 일 : 2016. 07. 06

Materialism, Lookism and Disordered Eating Symptoms
Among Young Adult Women:
Social Comparison and Body Dissatisfaction as Mediators

Kyoung Ok Seol

Sun Young Park

Ji Eun Park

Ewha Womans University

Despite the detrimental effects of materialism in Korea, minimal research has been conducted to determine its relationship to mental health.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ism and eating disorder symptoms in 569 young adult Korean women. We hypothesized that materialism would predict lookism and increase appearance-related social comparison which in turn, would lead to overall physical dissatisfaction and higher levels of eating disorder related behaviors. Results showed that lookism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ism and eating disorder symptoms. Results also showed that the link between materialism and eating disorder symptoms were fully mediated by lookism, social comparison of appearance and body dissatisfaction, respectively. Theoretical and clinical implications of the study and limitations are discussed.

Key words : materialism, lookism, disordered eating, social comparison, body dissatisfaction